

무더운 날씨에 수행정진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청안(淸安)을
바라며, 종단쇄신을 위해 진력을 다해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
전합니다.

종단쇄신위원회의 활동으로 우리 종단은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
있는 씨앗을 심었습니다. 이제 싹을 틔우고 결실을 이루어 종단 역사에
소중한 의미로 아로새겨질 것입니다.

아울러 종단은 변화와 쇄신을 통해 세상에 기쁨과 희망을 주고자 최
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. 앞으로도 변함없이 종단 화합과 불교 중흥
에 위원님들의 근념(勤念)을 더해주시기 바라며, 이러한 정진이 모든
이의 청안청락(淸安淸樂)으로 이어지길 기원합니다.

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